

화요세평



김명화

교육학 박사·작가

간이역에서 국수를 먹었다. 혼자인 몸이라 창가를 바라보는 의자를 선택했다. 주인장은 맑은 육수에 계란, 애호박 고명까지 올려 줬다. 국수를 먹다가 주변을 살펴보니 홀로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이 많다. 개인화 사회로 변하면서 익숙해지는 풍경이다.

광산구에 사는 지인이 한숨을 길게 몰아쉬며 전화를 했다. 딸아이가 독립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서울로 학교 가는 것도 아니란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 이제는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것이다. 딸아이가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지인은 안되는 이유 10가지를 말했다. 딸 아이는 되는 이유를 20개를 내놓았다고 한다. 결국, 딸 아이의 의견을 수용해 먹을 마른 반찬과 김치를 준비해주면서 별생각이 다 들어 하던 일을 던져 놓고 전화를 한다며 뉘드리를 늘어놓았다.

비혼족 증가 다양한 삶 무늬

나노사회가 되면서 가족이라는 범주가 다양화되었다. 인간은 개인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가장 변화되고 핵심

개인화 시대의 가족

화된 것은 가족의 급격한 변화이다. 가족의 변화는 가족 규모의 축소, 1인 가구의 증가, 비혼과 만혼의 확대, 출산율의 지속적 저하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했다. 결혼하지 않는 비혼족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삶의 무늬가 등장했다. 혼술, 혼밥이라는 단어와 함께 결혼 안 할테니 축의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는 기사가 떠올랐으며, 친구들 사이에 결혼하지 않는 친구에게 비혼 위로금을 챙겨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등장하였다. 또한, 1인 가족 인구가 많아지면서 소비시장도 달라지고 있으며 반려동물, 반려식물, 반려돌까지 가족으로 부상했다.

P의 가족은 해체됐다. 각자의 일터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 딸은 서울에, 아들은 부산에, 남편은 전남에, 광주 본가에 홀로 집을 지키고 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적적하고 외로워 반려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다. 작년에 집으로 들어온 올리브 나무를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있다. 지중해 나무인 올리브는 바람, 햇살의 양을 잘 조절해야 하며 작은 잎에 정성을 들이다 보면 시간이 잘 간다고 한다.

평균 실종이 된 사회에 가족의 범위는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하겠다. 황정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의 '개인화 시대의 가족 변화의 연구'에서 '한국 가족의 변화를 전망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할 때 가족 위기론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폭넓게 이해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하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인들의 삶의 인식과 태도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가족의 범주가 달라졌으며, 결혼도 필수가 아니

며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도 선택 사항이며, 또한, 결혼하지 않고 동거 관계, 혼인, 혈연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면 가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적인 가족의 관계를 넘어 현실적인 가족의 관계를 수용하는 인식이 확산돼야 할 것으로 본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개인화 시대에 가족은 전통적 지배와 부양의 형태를 벗어나 현대 사회의 새로운 책무와 통제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 체계로 인한 결핍이 개인적 선택의 결과 또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 사회 전환의 시기가 온 것이다.

개인 책무 늘어나는 일상

오랜만에 만난 P가 저녁이 되자 집에 일찍 가야 한다고 한다. 쟁겨야 할 가족이 없는데 왜? 라는 질문에 강아지 밥 챙겨주고 산책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라 한다. 가족이 없으면 해결해야 할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일상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결핍을 개인이 해결하면서 헤쳐나가는 삶의 과정은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화 시대에 가족은 이제 삶의 책무는 가족 공동체를 벗어나 자신이 삶의 책무와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며 가족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선택, 결정, 감당해야 할 개인적 과업들은 늘어날 것이다. 이제 가족은 사회적 제도나 균형을 잡으면서 개인화된 일상을 만들어 갈 때 삶은 더욱더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광주, 물부족 문자가 최선인가

자절약을 강조하던 시대가 떠오른다고 한다. 다른 대책이 약하다는 것이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위기에 서로 협력적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하는데도 왜 시민들은 불만일까? 그 바탕에는 불안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첫째는 시민들 탓이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물 부족 대책을 책임지는 측에 시민들의 절약말고는 없는듯 반복되는 문자로 압박감을 느끼는 점이다. 일부 언론의 취재로 다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뿐 시정의 친절한 대책은 문자 이외를 통해 듣는 이야기는 전무하다.

둘째는 장기적인 물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물부족국가 중의 하나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발표되어야 하는데 단기적인 방편말고는 없다.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영산강에서 끌어오거나 해양수를 담수화하는 논의 정도다.

셋째는 이웃 전남·전북지역과 협력적 모색이 없다. 인근 지자체와 MOU체결을 통해 근본적인 정책적 모색이 없다. 이는 광주지역 하늘에서만 비를 받아 급수량을 확보할 수 없다.

넷째는 확보된 급수원이 가정까지 도달하는데 누수율이 너무 높다. 평소 공사를 위해 지하를 파면 손상되는 급수관의 문제가 누수원인이 아니라 관로자체가 노후화되어 누수율이 높다고 한다. 이에 대한 현대화가 시급하다.

옛날에는 통치란 치산치수라고 말했다. 땀감을 확보하면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림을 보존하고, 홍수와 농업용수를 확보하면서 가뭄에 대비하는 것이 통치의 핵심이었다. 지금도 시정이 책임져야 할 내용은 마찬가지다.

상하수도문제, 도로와 교통문제, 주거환경 문제는 국가 행정과 지자체 행정이 책임져야 할 기본 요체다. 물부족 문제는 한 가지 물문제가 아니다. 수도공급이 도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의 바로미터다. 물문제와 연결되는 도로, 토목, 에너지, 환경 등 종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물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

먹는 물은 그냥 H2O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정의 문제다. 물을 단순히 시민들이 먹을 양으로만 바라보는 것일 때 답답하기 짝이 없다. 오늘의 시대는 인공강우까지 AI로 조절하는 시대다.

천수답처럼 하늘이 무심해 비를 뿌리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면 날마다 기우제를 올리면 될 것이다. 기후환경 문제가 심각한 시대를 의식하지 않은 게으름이다.

어쩌면 먹고 사는 식량문제보다 더 실리적인 것인 핵심적인 것이 상수도 문제다. 물은 사상도 입장도 고집도 필요한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21세기 도시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고민거리다. 단순한 물 문제가 아니다. 묘하게도 가수 이적의 '물물물'이 떠오른다.

고액알바 '현금수거책' 범죄행위 인식해야

책'이 대부분이다. 현금수거책은 일반적으로 흔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쉽고 단순한 노동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아르바이트다 보니 경제사정이 힘들거나 궁핍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창희 공성경찰서 경무계장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馨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위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대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함평 '군공항 설명회' 진전 주목한다

함평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따져보는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열렸다. 지난주 함평 국민체육센터에서 마을 이장과 반장 등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등 함평에서의 움직임이 간단치 않다. 이곳에서는 이미 군 공항 유치위원회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웃 영광지역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열린 바 있어 지역 안팎으로 비상한 관심을 받는다.

이번 함평 주민설명회에서는 이상인 군수가 참석해 "유치한다면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반대한다면 어떤 사안이 안된다고 명시해달라"고 했고,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어느 지역으로 유치되더라도 전남도와 함께 지원하겠다. 광주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치위원회는 "인구 감소 대신 유입이 시작된다. 군인 숙박과 외박으로 연간 유동 인구가 수만 명 발생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군부대 급식 공급으로 농어민 판로 걱정도 덜다"며 여러 혜택을 설명했다.

함평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구체적

인 군 공항 유치 활동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치위원회는 유체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은 유치로 얻는 장점과 단점이 엇갈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여기에 군 공항 유치 추진으로 함평이 광주로 행정 통합되는 상황까지 전제할 경우 전남도의 대응 등 상황이 복잡해진다. 특히 함평 군민 간의 갈등, 전남도와와의 신경전이 얽히고설켜면 군 공항 이전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경계감을 높출 수 없다.

전남지역은 인구 및 지역소멸을 타개할 발전적인 대안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군 공항 유치가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지역 내 이견, 이웃 지자체 간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화의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방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함평의 주민설명회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구·경북(TK)처럼 이전 대상지가 조속히 선정돼 지역발전 청사진을 그리는 시기가 도래하길 기대한다.

산업기능요원 보강 정부차원 대책 필요

산업기능요원 감소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다. 청년인구 감소와 정부의 산업 분야 대체복무 예정 인원 감축에 따른 현상이다. 가뜰이나 인력난이 심각한데 산업기능요원까지 줄자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크다.

지난달 광주·전남 산업기능요원 복무 인원은 999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35.3% 줄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예정인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병무정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들은 군 복무를 대신해 전문연구 및 제조업 등 지역 기업에서 일한다. 병 월급보다 높은 월급을 받으며 목돈 마련과 사회적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병역지원 감소와 병 월급 인상 등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기본적인 군 생활 복무에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기능요원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

고 있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오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병장 기준 월급은 100만원이며, 지난 2018년 40만5,700원에 비해 146.4% 오른 수치다. 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들은 청년들의 미스매치 현상과 산업기능요원 감소에 따른 인력 수급난을 호소하고 있다.

병무청에서 지정된 광주·전남 지역 병역 지정업체는 512곳이다. 이중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업체는 473곳, 전문연구요원은 39곳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2곳인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510곳에 달해 산업기능요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경우 지역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병 봉급 인상으로 시달리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은 꼭 필요하다.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안정적인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희망한다. 특히 청년 인재 확보는 절실하다. 산업기능요원을 보강하는 방안이 고려되길 바라는 이유다.

건조한 봄철, 임야화재 주의를

독지투고



박준영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진화로 발행한 건이 73.6%를 차지한다.

이렇게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가 화재 주원인이 돼 인명 피해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위험한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잘못된 상식으로 해마다 봄이면 농촌에서 병해충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논·밭두렁 소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을 없애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병해충을 잡아먹고 사는 천적을 제거한다고 한다. 이 같은 잘못된 행위로 논밭두렁을 태우다 대형산불로 이어지곤 한다.

위험한 소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므로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임야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재취약지역을 선정해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원 화재안전지킴이 봉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임야화재의 위험성을 알고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흡연·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허용범위 외 취사금지 등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지만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우리의 모든 걸 앗아 갈 수도 있다. 이에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틈틈이 주변 화재 위험을 살펴보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

독자광장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도 심각하다.

수법 중 가장 흔한 것은 콜센터 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이다.

범죄 조직은 전체 계획을 세우고 각 하부직원에게 지시를 하는 '총책' 및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회수해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철저한 점조직으로 이뤄져 있다 보니 검거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처벌을 받은 대상은 '송금책' 혹은 '현금수거